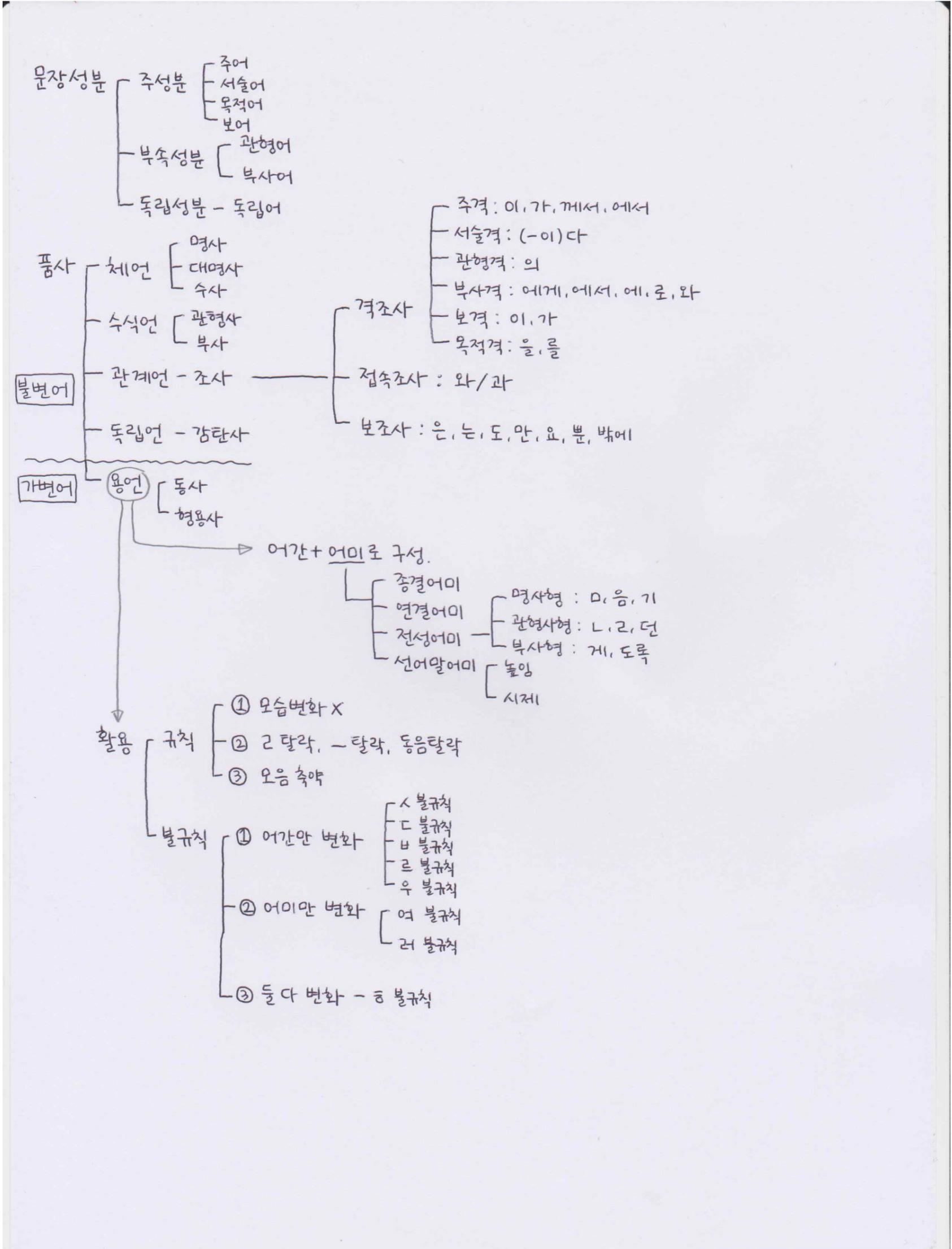


문법 주요 포인트 정리

- 이 자료는 문법 개념을 한 번쯤 정리하신 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주 헛갈려하고, 틀리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팁과 관련 기출문제 및 간단한 풀이를 실어뒀으니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해설은 각 파트별로 처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세요.

1. 문장 성분 / 품사

* 기본적으로 아래의 그림을 확실하게 외워둡시다. 특히 격조사와 전성 어미의 사례는 알아 두면 문제풀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 꼭 외웁시다! 백지에 안 보고도 이 내용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주세요! 일단 이 표에 있는 내용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아래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아래 그림처럼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외워주세요.



1. 용언의 활용

-> 외워두면 확실히 편합니다. 다만 규칙 활용과 몇 가지 특이한 불규칙 활용만 외워둬도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이를 외우고, 용언의 활용은 어간에 '어/야'라는 어미를 붙였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간에 '어/야'를 붙여보자! (물론 다양한 어미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어/야'를 붙여 보는게 가장 쉽다는 겁니다.)

- * 규칙 활용 : ① 어간, 어미 모습 변화x (ex. 먹다, 씻다, 잡다...)
 ② 모음 축약 (ex. 가리 + 어 = 가려, 두 + 었다 = 뒀다...)
 ③ ㄹ탈락 (ex. 울 + 는 = 우는, 날 + 니 = 나니...)
 ④ -탈락 (ex. 쓰 + 었다 = 썼다...)
 ⑤ 동음 탈락 (ex. 가 + 아 = 가, 서 + 었 + 다 = 썼다)

- * 특이한 불규칙 활용 :
 ① 르 불규칙 vs 러 불규칙 : '이르다'의 차이
 -> 1. 시간적 의미의 '이르다'일 때 -> 이르+어= 일러 ('르'가 탈락)
 2. 공간적 의미의 '이르다'일 때 -> 이르+어=이르러 ('어'가 '러'로 변화)
 ② 여 불규칙 -> only 동사 '하다'에만 적용 (하 + 어 = 하여)
 ③ ㅂ 불규칙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화한 것 같지만, 어간만 변화한 것임.

38.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것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0807)

<보 기>

이웃 주민들은 깨끗한 길거리를 기분 좋게 ㉠걸 수 있다.
 ㉠은 ㄷ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어간의 끝소리가 'ㄷ'인 용언 가운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뀌는 것을 ㄷ불규칙 활용이라 하며, 이 용언을 'ㄷ불규칙 용언'이라 한다.

- ① 철수는 금괴를 땅에 묻었다.
- ② 민수는 문을 닫고, 외출을 했다.
- ③ 거실에 놓을 의자 하나를 얻었다.
- ④ 영수는 음악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 ⑤ 사람들은 우주에 생물체가 살 것이라고 믿고 있다.

11.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903 고2)

<보 기>

국어에서 용언(用言)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용언이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하는 것을 'ㅅ'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 낫다 : 낫고, 나아, 나오니, 나았다
 ○ 젓다 : 젓고, 저어, 저으니, 저었다

- ① 씻다 ② 잇다 ③ 굶다 ④ 붓다 ⑤ 짓다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310B)

자료
 ◦ 차에 실은(○) 것이 뭐니?
 ◦ 시들은(×)/시든(○) 꽃 한 송이가 있다.
 * ○ : 어문 규정에 맞음. × : 어문 규정에 어긋남.

의문
 ◦ 어문 규정에 따를 때, '신다'처럼 어간 끝이 'ㄷ'인 용언과 '시들다'처럼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탐구

① '실은', '시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해 본다.
 ◦ 실은 → 실-(어간) + -은(어미)
 ◦ 시든 → 시들-(어간) + -ㄷ(어미)

②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본다.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u>들</u> 은(○) 소리다.	듣다	들은	들-+-은
정성을 <u>쏟</u> 은(○)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u>내밀</u> 은(×)/ <u>내민</u> (○)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ㄷ
<u>부풀</u> 은(×)/ <u>부푼</u> (○) 꿈을 안고 왔다.	부풀다	부푼	부풀-+-ㄷ

결과
 ◦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ㄷ'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
 ◦ 어간 끝이 'ㄹ'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ㄷ'이 결합하면 ㉡.

- | | |
|-----------------|------------|
| ㉠ | ㉡ |
| ① 'ㄷ'이 'ㄹ'로 교체됨 | '-으-'가 삽입됨 |
| ② 'ㄷ'이 'ㄹ'로 교체됨 | 'ㄹ'이 탈락함 |
| ③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 ④ 'ㄷ'이 탈락함 | 'ㄹ'이 탈락함 |
| ⑤ 어간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11. 다음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한 것은? (1407B)

의문	'자리를 바꿔(○) 앉았다.'와 '잔금을 치뤘(×) 두었다.'에서 '바꿔'와 달리 '치뤘'의 표기가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탐구	(1) 각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 활용 형태를 분석해 본다. ◦ 바꾸-(다) + -어 → 바꾸어 → 바꿔 ◦ 치르-(다) + -어 → 치러 (2) '치러'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 본다. ㉠
결과	'치르다'를 '바꾸다'와 같이 어간이 'ㄷ'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치르-'는 어간이 'ㄷ'로 끝나는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ㄷ'가 탈락한다.

- ① 할머니께서 아침에 동생을 깨워 주셨다.
- ②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가 놓았다.
- ③ 오늘은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 ④ 언니의 얼굴이 오늘따라 몹시 하얘 보였다.
- ⑤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았다.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706)

<대화 1>

A : '(갈이) 줍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줍다'는 '줍고', '줍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 그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줍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줍다'는 '줍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줍-'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고'처럼 어간이 '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버

>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ㄷ' 앞에서는 반모음 'ㄱ / ㄷ [w]'로 바뀌었고, '도복시니>도오시니', '저블>저울'에서와 같이 'ㅅ' 또는 'ㄷ'이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ㄱ' 또는 'ㄷ'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저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서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짓고'와 현대 국어의 '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은
② (선을) 굶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버	누븐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정답: 412221

2. 조사와 의존 명사, 어미의 구별

->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가장 흔한 문장 형태는 '관형어 √ 체언+조사'입니다. 관형어가 나오면 한 칸 띄우고, 체언+조사는 붙여쓰기!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 헛갈리는 의존 명사와 조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 만, 지' 같은 의존 명사라도, 조사로도 쓰이는 단어들은 저 구조 안에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뻐 뿐이다 -> 의존 명사 (why? '예뻐'이라는 관형어가 띄어쓰기를 통해 앞에 나왔고, 그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체언이기 때문)

그는 내가 괜히 걱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 조사 (why? '것'이라는 체언과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바로 나오기 때문)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어근 등의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셔야 하고, 헛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파트는 의존 명사vs조사 혹은 어미를 구별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어미, 체언, 접사 등을 구별하라는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니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문제풀이를 통해 연습합시다.

물론 가장 기본은 각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그 개념들 안의 개념 (어미-전성 어미, 선어말 어미.. 조사-격조사, 보조사..) 사이의 관계 혹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건드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구요.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개념들 사이의 관계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합시다!

12.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904)

< 보기 >

㉠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ㄴ'과 '지'는, '-ㄴ지'와 '-ㄴ 지'의 형태를 이루어 쓰인다. 전자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이고, 후자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쓰이는 경우이다. ㉠ 이처럼 어미와 의존명사가 겹쳐 쓰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① [미리 자 들걸.]
후회할 걸 왜 그랬니?
- ② [집에 가서 다시 연락할게.]
학교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 ③ [이렇게 보다니 정말 오랜만이군.]
그 친구를 십 년 만에 만났다.
- ④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 ⑤ [서류를 검토한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12.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10)

< 보기 >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에서의 '잘못'과 '나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의 '잘못'은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르다. 즉, 전자의 '잘못'은 명사이지만, 후자의 '잘못'은 부사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오늘 아니 가겠다고 하더라.]
[아니! 벌써 그곳에 도착했어?]
- ②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 ③ [온다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간절히 바라던 기회는 온다.]
- ④ [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었다.]
[철수는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 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다섯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했다.]

12.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06A)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12.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1507A)

<보기 1>

수관형사는 수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다. 문장에서 둘 다 활용을 하지 않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지만, 수관형사는 수사와 달리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 이 일을 마치는 데에 ㉠칠 개월 걸렸다. (수관형사)
- 육에 일을 더하면 칠이다. (수사)

<보기 2>

- 명호는 바둑을 ㉡다섯 판이나 두었다.
- 윤배가 고향을 떠난 지 ㉢팔 년이 지났다.
- 은주는 시장에서 토마토를 ㉣하나 사 왔다.
- 현수는 달리기 시합에서 ㉤셋째로 들어왔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3.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09)

< 보 기 >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11)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논 엇던 사름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A]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 (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놉몬 누구 (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 (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한 벗은 누구고 (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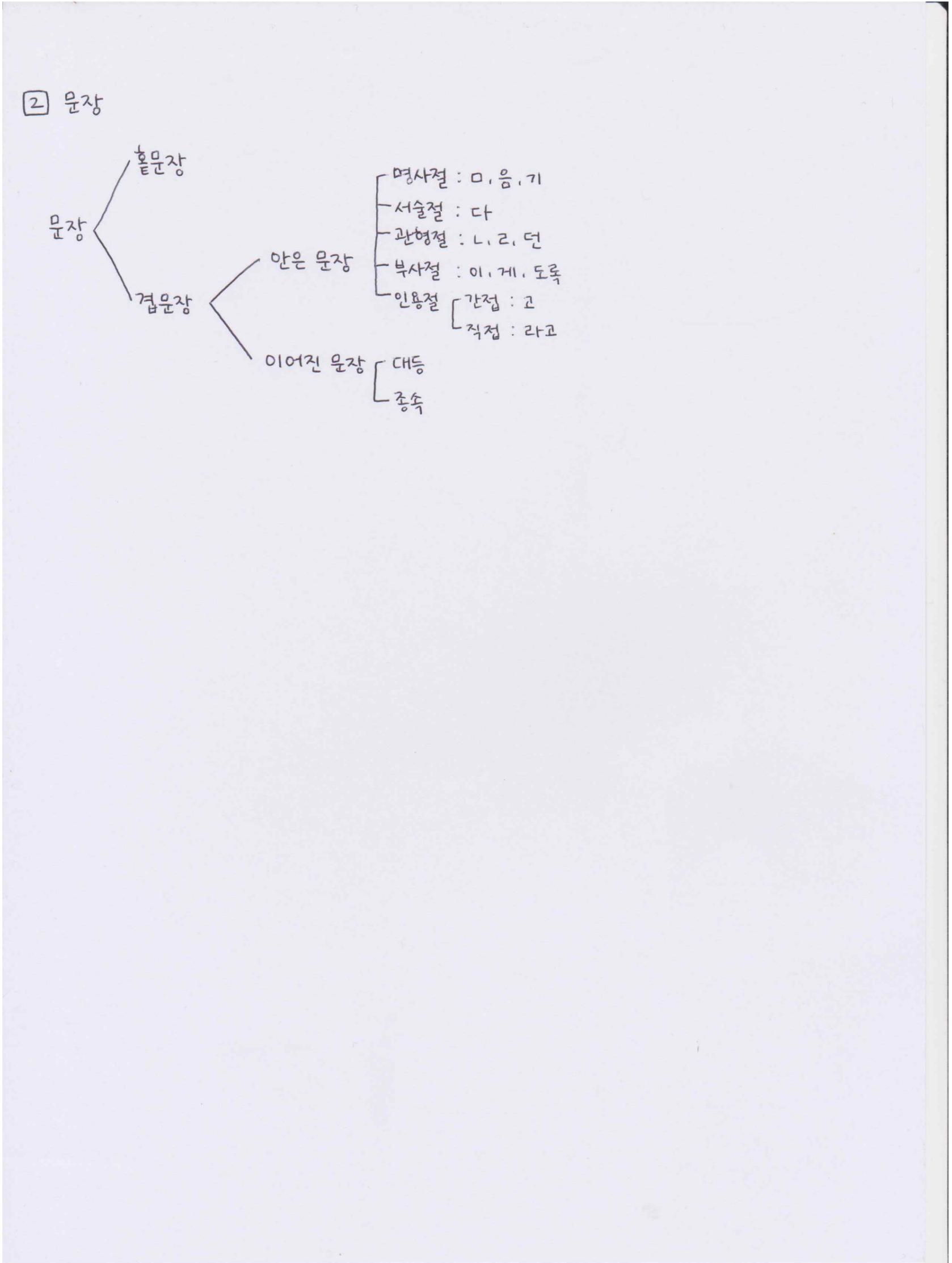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정답: 3331341

II. 문장

* 역시 아래 그림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안은/안긴 문장 파트의 경우 아래의 구조와 안은 문장이 각 절로 안길 때 가지고 오는 어미들을 숙지해두면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할게요. 일단 아래 구조부터 확실하게 숙지해둡시다 :)



1. 안은/안긴 문장 문제풀이법

->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자주 출제되었고, 많은 데 이터탓에 사실상 파헤법이 정해져있거든요. 하지만 나온다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들 다 틀릴 때 손쉽게 맞히는 겁니다.

안은/안긴 문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위에서 나온 각 절로 안길 때의 어미를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알아야 문장 분석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의 경우에는 전성 어미의 예시와 똑같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걸 숙지한 뒤에는, 문제를 풀어야겠죠?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보기>의 문장들을 먼저 분석한 뒤에 선지로 간다는 겁니다. 또한 안긴 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물론 주어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같은 관형어 하나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내가) 예쁘다'와 같이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긴 문장으로 보는 것이죠.) 결국 안은/안긴 문장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빠먹지 않고 안긴 문장 모두 찾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안긴 문장을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2. 인용절 찾기 (라고/고가 있지만 찾으면 돼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서술절 찾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찾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문장의 진짜 서술어 앞에 진짜 주어 말고 또 다른 주어가 있는지 찾기!)
4. 명사절 찾기 (역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기 꼭 거쳐야 합니다. 'ㅁ,음,기'로 안긴 문장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5. 관형/부사절 찾기 (가장 쉬운 부분이니 마지막에 찾습니다. 핵심은 '예쁜, 새롭게' 같은 관형어, 부사어 하나도 안긴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

13. <보기>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10)

- < 보 기 >
- ㄱ.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 ㄴ. 언니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
 - ㄹ. 나는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 ㅁ.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 ① ㄱ과 ㄴ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②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③ ㄴ의 안긴문장은 ㄷ의 안긴문장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 ④ ㄷ과 ㅁ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각각의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ㄹ과 ㅁ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13.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511A)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06)

-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03)

-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이 드러났다.

- ① ㉠, ㉢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 ④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14. ㄱ~ㄷ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04)

- < 보 기 >
- ㄱ.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 ㄴ.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 ㄷ.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 ① ㄱ은 ㄴ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② ㄴ은 ㄱ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③ ㄷ은 ㄴ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한 절이 있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ㄴ과 ㄷ은 모두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다.

정답: 45215

III. 단어의 형성

* 이 파트는 개념보다도 사례가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과서나 개념서 등에서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해보시고 익숙해지는 것이 단어의 형성 파트의 성패를 가릅니다. 당장 작년 수능에서도 '깨뜨리다'가 파생어인 걸 몰라서 틀리신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1. 통사적 합성어 vs 비통사적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과 같은 유형. (명 + 명), (관 + 명), (주어 + 서술어), (부사어 + 서술어) + 조사 생략
ex. 돌다리, 작은형, 힘들다(조사 생략)

* 비통사적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 것.

- 어미 생략 : 날(고)뛰다, 뛰(어)놀다, 뒀(은)밥
- 잘못된 수식 (대표적으로 부사어 + 명사) : 부슬비, 함박눈
- 우리말과 다른 한자어 어순 : 등산 (원래 '산을 오르다'이므로 '산등'이어야 함), 등교 (원래 '학교를 가다'이므로 '교등'이어야 함)

일단 이 정도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많은 사례를 숙지합니다.

2. 특이한 파생어 (□ -> 접사)

-> 목욕하다, 달경거리다, 커다랴다, 깨뜨리다, 새롭다, 정답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사례들을 실어봤습니다. 꼭 알아둡시다. 이들은 단일어도, 합성어도 아닌 '파생어'입니다!

3. 어미 vs 접사 (ㅁ, 음, 기)

-> 'ㅁ, 음, 기'와 같은 특정한 음운은 어미로도 쓰이고, 접사로도 쓰입니다. 그럼 또 이 둘을 비교하는게 핵심이겠죠? 간단합니다. 어미와 접사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접사는 특정 단어의 뜻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사 ㅁ, 음, 기 등은 명사로 품사를 변화시켜주는 '명사화 접미사'입니다. 이게 명사형 전성어미와 헷갈리는 이유는 모습이 같기 때문인데, 둘을 구분하는 건 매우 간단하겠죠? 바로 '품사 변화 여부'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어미는 문장 성분을 정해줄 뿐 품사는 바꾸지 못하는 반면, 접사는 품사 자체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품사를 바꾸면 접사, 못 바꾸면 어미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어미 : 품사 변화x, 부사어와 호응(why? 여전히 용언이기 때문), 서술성이 있음
접사 : 품사 변화o, 관형어와 호응(why? 명사, 즉 체언으로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술성이 없음

여기서 서술성이 있다 없다하는 건 주어와 호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어의 상태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서술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2.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1406A)

<보 기 1>

문장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설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 기 2>

- 그는 멋쩍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2.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1509A)

< 보 기 >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② 돌아서다 ③ 뒤섞다
④ 빛나다 ⑤ 오르내리다

1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503A)

< 보 기 >

선생님: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용언	어간	어근
춥다 (단일어)	춥-	춥-
치춥다 (파생어)	치춥-	춥-
샘춥다 (합성어)	샘춥-	샘, 춥-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용언이 단일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세 단어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 볼까요?

용언	어간	어근
줄이다	줄이-	㉠
힘들다	힘들-	㉡
오가다	오가-	㉢

- | | ㉠ | ㉡ | ㉢ |
|---|-----|-------|--------|
| ① | 줄이- | 힘들- | 오가- |
| ② | 줄이- | 힘들- | 오-, 가- |
| ③ | 줄- | 힘들- | 오가- |
| ④ | 줄- | 힘, 들- | 오-, 가- |
| ⑤ | 줄- | 힘, 들- | 오가- |

12. 다음은 접사와 어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수업 중 발표한 내용이 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04A)

[발표 내용]

발표 1: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선무당'은 어근 '무당'에 접두사 '선-'이 결합하여 '서툰'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군말', '군살'도 그 예에 속합니다.

발표 2: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보'는 어근 '피'에 접미사 '-보'가 결합하여 '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발표 3: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면 품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하다'가 붙으면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뀝니다.

- ① '발표 1'의 내용 중 '군말', '군살'의 '군-'은 '쓸데없는'의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군.
- ② '발표 1'과 '발표 2'를 종합해 보면,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군.
- ③ '발표 2'의 단어에 '멋쟁이', '장난꾸러기'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발표 2'와 '발표 3'을 종합해 보면, '피보'는 '-보'에 의해 의미가 더해지고 품사가 바뀌었군.
- ⑤ '발표 3'에는 '숙제하다'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1706)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09)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 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11.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 | | |
|--------|-------|--------|
| ㉠ 나들이웃 | ㉡ 눈웃음 | ㉢ 드높이다 |
| ㉣ 집집이 | ㉤ 놀이터 | |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12.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 동수가 미에게 선물을 주었다.
-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겠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겠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겠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겠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겠군.

11. <보기>의 ㉠, ㉡가 사용된 예를 ㉢~㉥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1703)

<보기>

선생님 : 여러분이 헛갈려 하는 것들 중 ㉠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으)㉠', '-기'와 ㉡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 '-기'가 있어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세상은 홀로 ㉠ 살기가 어렵다.
- 형은 충분히 ㉡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날씨가 더워 시원한 ㉢ 얼음이 필요하다.
- 우리에게 건전한 ㉣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 이곳은 풍경이 매우 ㉤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 | ㉠ | ㉡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09)

선생님 :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1 :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2 :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3 :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학생4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11. <보기>의 ㉠~㉣ 중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 ㉢. '사범'과 '학'을 결합하여 '사'라는 말을 만들었다.
- ㉣. '잡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 ② 언니는 가구를 부 새것으로 바꿨다.
- ③ 아이가 요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다.
- ④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 ⑤ 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03)

— < 보 기 >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모듈별로 <그림>의 대상을 지칭하는 새 말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새말들의 단어 구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모듈 활동 결과

 <그림>		새말
	㉠	오이칼, 껍질칼
	㉡	감작감작칼, 사각사각칼
	㉢	까개, 깎개
	㉣	긁도구, 밀도구
	㉤	박박이, 쓱쓱이

- ① ㉠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은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은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 ④ ㉣은 명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 ⑤ ㉤은 부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12.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1804)

— < 보 기 > —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런 결합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해서,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 ㉡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 ① 굳것질 ② 바느질 ③ 겹겹이 ④ 다듬이 ⑤ 헛웃음

정답 : 324412242143

IV. 표현법

* 이 파트는 높임과 사동/피동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높임법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감으로 '누굴 높이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사동/피동 표현입니다. 이히리기 우구추/이히리기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사동/피동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어떡할지 몰라서 울고 있죠. 이 파트에서는 사동/피동의 구분에 대한 팁을 정리하고 가봅시다.

1. 사동vs피동

* 사동 접미사 : 이히리기우구추

* 피동 접미사 : 이히리기

->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경우 '우구추'라는 접사가 쓰였으면 무조건 사동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히리기'의 경우가 골때립니다. 모양이 똑같으니 더 헷갈리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동은 '시키는' 느낌이 강하고, 피동은 '당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하지만, 이게 애매할 때의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① 목적어 유무 : 피동의 경우에는 보통 목적어가 주어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의 be + pp와 비슷하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예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② -게 하다 : 목적으로 애매하면 이것까지 확인을 해봅시다. 참고로 접사를 붙여서 사동/ 피동을 만드는 걸 '파생적 사동/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게 하다/-게 되다' 등을 붙여서 사동/피동을 만드는 걸 '통사적 사동/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파생적 사동의 경우 거의 대부분 통사적 사동으로 바꿀 수 있기에, '-게 하다'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사동, 말이 안 되면 피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 영수가 불을 붙인다 -> 영수가 불을 붙게 한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도둑이 경찰에게 잡게 하다.*
 사람들이 구멍을 뚫었다 -> 사람들이 구멍을 넓게 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 아기가 엄마에게 안게 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원래 사동사의 형태로 생겨서 용언의 어간이 '~~리'인 경우입니다. 말리다, 날리다, 달리다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시인데, 이들은 말렸다, 날렸다, 달렸다 등으로 나오더라도 사동 표현이 아닌 그냥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붙인 형태임을 명심합니다. 무적의 '-게 하다'를 붙여도 애매할 땐 그 용언의 어간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3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접미사 '-이'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0810)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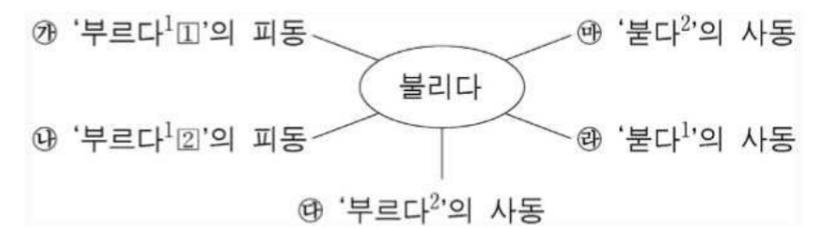
사동 접미사에도 '-이'가 있고 피동 접미사에도 '-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동사(깎이다, 닦이다 등)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다. 그러므로 이런 동사들은 문맥을 통해 구별해야 한다. 참고로, 사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피동사는 그렇지 않다.

- ① 어빈 파노프스키가 체계화한 도상학은 세 단계로 ㉠나뉜다.
- ② 양탄자로 반쯤 ㉡덮인 책상 위에 보석함이 있다.
- ③ 보석함 안에, 그리고 책상 위에는 보석들이 ㉢놓여 있다.
- ④ 소재로 ㉣쓰인 대상이 신화나 역사 속의 특정 인물은 아닌지를 밝힌다.
- ⑤ 베르메르는 금의 무게를 다는 여인을 통해 신의 정의와 인간의 삶의 무상함을 ㉤보이려 했던 것이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1106)

< 보기 >

부르다1 ㉠ 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②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2 ㉡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붙다1 ㉣ ㉤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붙다2 ㉥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① ㉠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렀다.
- ② ㉡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려 갔다.
- ③ ㉢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 ④ ㉣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 ⑤ ㉤ : 메주를 썬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13. <보기 1>은 접미사 '-시키다'와 관련하여 국어사전을 찾아본 결과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시키다'가 바르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10B)

< 보기 1 >

국어사전의 정보 1
 -시키다 ㉠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국어사전의 정보 2
 사동 ㉡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

< 보기 2 >

ㄱ. 내 힘으로는 군중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ㄴ. 여러분들께 저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ㄷ. 우리 군대는 적군을 항복시켜 사실상 전쟁을 끝냈다.
 ㄹ. 경수는 몸이 아픈 수희를 병원에 급히 입원시켰다.
 ㅁ. 모든 기계를 가동시켜도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1506A)

< 보 기 >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11)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떡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떡이'와 '넓이'의 '떡-'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떡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떡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떡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늘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정답: 532534

V. 음운의 변동

* 이 파트는 일단 기본적인 음운의 변동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여러 사례를 보며 이 변동이 교체/탈락/축약/첨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문제풀이가 중요한 파트입니다.

1. 음운의 변동

-> 간혹 음운 변동의 순서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먼저 보이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축약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축약의 경우 먼저 일어나는 성질을 보입니다. 그러니 축약의 경우에는 먼저 처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축약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축약은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밖에 없습니다. 간혹 'ㅎ + ㅅ = ㅆ'을 자음 축약의 사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발음 규정이지 음운의 변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소' 등을 발음할 때는 'ㅎ + ㅅ = ㅆ'을 적용하여 바로 [실쏘]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소] (자음군 단순화) -> [실쏘] (된소리되기)로 보시는게 더 적절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쟁이 오가기 때문에 평가원이 굳이 건드리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어쨌든 자음 축약은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몇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

① 된소리 -> 예사소리 (ㄱ -> ㄲ, ㄷ -> ㄸ, ㅂ -> ㅃ 등등..)은 탈락이 아니라 교체이다. (된소리를 하나의 음운으로 보기 때문)

② 겹받침 -> 홑받침 (ㄴㅅ -> ㄴ, ㄹㅁ -> ㄹ 등등..)은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다. (겹받침은 두 개의 음운으로 보기 때문) 이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2. 음운의 개수세기

-> 가끔 나오는 유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① 음운의 개수를 구하시오

-> 한 단어의 음운의 개수를 구하라고만 할 때는, 표기 기준이 아닌 '발음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음운의 정의 자체가 '소리의 최소단위'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기준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성의 'ㅇ'은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발음 기준에서는 ㄴ이 첨가될 테니까요.

② 음운의 개수 '변화'를 구하시오

-> 이 경우는 위와 다릅니다. 단순히 음운의 개수를 구하라는게 아니라, 음운의 변동으로 인한 개수의 '변화'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표기 기준 -> 발음 기준'으로 가면서 바뀐 음운이 몇 개인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훽하고'의 경우에는 표기 기준의 음운 개수는 'ㅎ, ㅏ, ㄹ, ㅊ, ㅏ, ㅊ, ㅏ'의 8개였지만, [훽카고] -> [흐카고]의 순서로 변동하면서 'ㅎ, ㅏ, ㄹ, ㅊ, ㅏ'의 6개가 되어서 2개의 음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편법(?)을 써보면, 결국 음운의 변동은 4가지밖에 없으니 그 4가지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음운의 개수가 몇 개가 줄어드는지 생각해 보면 편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축약, 탈락 : -1

교체 : +0

첨가 : +1

이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어떤 축약, 탈락, 첨가도 한 번에 2개 이상의 음운 개수를 변화시키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위의 사례를 다시 보면, [훽카고] (탈락) -> [흐카고] (축약)이 일어났으므로 -1이 두 번 일어나 2개의 음운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12.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04A)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뉘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줍니다.

< 보기 >

- ㄱ. 그는 날렵한 ㉠ 콧날[콘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졌다.
 ㅁ. 그녀는 ㉤ 잇몸[인몸]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③ ㉢은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④ ㉣은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략]'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⑤ ㉤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1409A)

< 보기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④ '급행열차[그깡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⑤ '서른여덟[서른녀덧]'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뺨],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텟]

- ① ㉠과 ㉡은 음절 중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1411A)

11. 다음은 '축약'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가)~(다)의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404A)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변동 중 '축약'은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농고'가 [노코]로 발음되는 **(가) 거센소리되기**는 자음이 축약된 사례이고, '보아'가 '봐'로 음절이 줄어드는 경우는 모음이 축약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음의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할 경우, **(나) 어간에서만**의 축약, 어미에서만 **(다) 어간과 어미**의 축약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으셨다'는 선어말 어미인 '-시-'와 '-었-'이 '-셨-'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어미에서만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기 >

고등학교 **(a) 입학** 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 정말 **(b) 좋다며** 반갑게 인사를 **(c) 나눴다**. 눈에 **(d) 띄게** 모습이 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들 마음만은 여전히 **(e) 보였다**.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 | | (가) | (나) | (다) |
|---|------|------|------|
| ① | b | a, d | c, e |
| ② | c | a, b | d, e |
| ③ | a, b | d | c, e |
| ④ | a, b | c, e | d |
| ⑤ | a, e | b, d | c |

1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1B)

< 보기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다[익따], 읊는[음:는], 닭지[닥찌], 읊기[읍끼], 밟는[밤:는]

- ① '읽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음:는]'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닭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읍끼]'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밟는[밤:는]'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1609A)

< 보기 >

국어에는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하고[바파고] 떡이다.
- ㉡ 옷에 흙까지[흑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 ㉢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 ㉣ 그는 고전 음악을 즐겨 듣는다[든는다].
- ㉤ 칼날[칼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① ㉠의 예 : 먹히다, 목걸이
- ② ㉡의 예 : 값싸다, 닭똥
- ③ ㉢의 예 : 굳세다, 숨이불
- ④ ㉣의 예 : 겁내다, 맨입
- ⑤ ㉤의 예 : 잡히다, 설날

1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611A)

- ㉠ 읊지 → [읊찌],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솟또], 옷고름 → [으꼬름]
- ㉣ 닭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 ① ㉠,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 앞 음절의 중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 '깎다 → [깎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중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 '얕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1.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603)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낱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낱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활용 유형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 생: ‘낫다’는 (나), ‘낱다’는 (다)에 해당됩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축약 | Ⓐ | Ⓒ |
| ② | 탈락 | Ⓑ | Ⓐ |
| ③ | 탈락 | Ⓒ | Ⓑ |
| ④ | 교체 | Ⓑ | Ⓒ |
| ⑤ | 교체 | Ⓒ | Ⓑ |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06)

< 보 기 >

㉠ 맑+네→[망네]
 ㉡ 낮+일→[난닐]
 ㉢ 꽃+말→[꼰말]
 ㉣ 굽+고→[글꼬]

① ㉠: ‘값+도→[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③ ㉡: ‘물+약→[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④ ㉡, ㉢: ‘팔+죽→[판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 ‘잃+지→[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1607)

< 보 기 >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움겨서] 밥을 먹었다.
 ㉡ 그녀는 내 말을 굳이[구지]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임문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 나는 말을 더듬지[더듬찌]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그는 듬직한[듬지칸]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굽기다, 급하다
 ② ㉡의 예: 미달이, 뺨대다
 ③ ㉢의 예: 집문서, 만누이
 ④ ㉣의 예: 껴안다, 꿈같이
 ⑤ ㉤의 예: 굽히다, 한여름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806)

< 보 기 >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영문]’과 ‘뽕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뭉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닐레]’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11)

< 보 기 >

㉠ 흙일 → [흥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11 ~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03)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가령 ‘국’과 ‘물’은 따로 발음하면 제 소리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지만, ‘국물’처럼 ‘ㄱ’과 ‘ㄹ’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화[구과]’, ‘종다[조타]’처럼 예사소리와 ‘ㅎ’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국밥’은 반드시 [국뽕]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짜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갑자기’로 표기하더라도 발음할 때에는 예외 없이 [갑짜기]가 된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가 [신:꼬]로 발음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申告)’는 [신고]로 발음되듯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는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장애음: 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이룸.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집념[짐념]도 강하다.
- 춤을 ㉡ 곧잘[곤잘] 춘다.
- 책상에 ㉢ 놓고[노코] 가라.
- 음식을 ㉣ 담기[담:끼]가 힘들다.
- 모기한테 ㉤ 뜯긴[뜯긴] 모양이다.

- ①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③ ㉡와 ㉢는 발음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⑤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가꿈, 어찌
 2.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잔뜩, 훨씬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몹시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딱딱	딱닥

- ①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꿈’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몹시’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③ ‘딱딱’은 ‘딱닥’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닥]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쑤]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 ⑤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다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11.<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804)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 네 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음운이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

- ㉠ 날날이→[난:나치]
- ㉡ 냇두리→[넉뚜리]
- ㉢ 입학식→[이팍씩]
- ㉣ 첫여름→[천너름]

- ①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탈락이다.
- ③ ㉠에서 발음된 ‘ㄷ’과 ㉣에서 발음된 ‘ㄹ’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된 것이다.
- ④ ㉠에서 ‘ㅌ’이 ‘ㄴ’으로, ㉣에서 ‘ㅅ’이 ‘ㄴ’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ㄱ’이 ‘ㄱ’으로, ㉣에서 ‘ㅅ’이 ‘ㅅ’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

정답: 343352335312344